

장흥,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

'희망가꾸기' 사업 성과...주거복지전달체계 개선·환경개선 증진 기여 복지재단·기관단체·기업·재능기부 연계해 작년까지 총 주택 28호 신축

장흥군은 최근 열린 '제5회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은 장흥군은 부상으로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주거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주거환경개선 증진에 기여한 지자체와 주거복지 관련 단체를 선정하고 이날 시상식을 개최했다.

장흥군은 '희망가꾸기' 사업의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흥군은 복지재단, 지역 기관단체, 기부 희망기업, 재능기부자 등으로 구성된 주거환경개선사업 네트워크를 마련해, 2013년부터 지속적인 주거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희망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8호의 주택

을 신축해 군민의 주거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힘써왔다.
한편 정중순 장흥군수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복지재단과 지역 기관단체, 봉사자들과 감사드립니다"며 "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정근 기자 kimjg@



장흥군은 최근 '제5회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장흥군 제공

곤충산업 활성화 위해 나선다
나주-고구려대, 토론회 개최

나주시는 최근 관내 대학인 고구려대학교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곤충산업 대중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고구려대 강의를 들으며 열린 토론회는 지역 곤충사육농가 및 관심 농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나주시가 지원하는 곤충사육시설, 기자재, 먹이 등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곤충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제품브랜드화, 곤충 대중화를 위한 체험 홍보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 간 머리를 맞췄다.
고구려대는 곤충산업 관련 나주시 대표 브랜드 개발 및 6차산업화를 통한 혁신도시와의 상생 방안 등을 제안했으며, 이에 참석자들은 곤충사육에 따른 안전한 사료 표준화, 축산물에 준하는 안전기준 설정 및 곤충 생산에 따른 가공 상품화 추진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고구려대와 곤충사육농가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사업 분석을 거쳐, 곤충산업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장성 "청년 근속장려금 신청하세요"

중소기업·청년근로자에 4년간 최대 2천만원 지원 내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장성군이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위해 지원하는 '청년 근속장려금' 혜택이 더욱 커진다.
장성군은 최근 전남도와 함께 '2019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이에 참여할 지역 기업의 신청서를 20일부터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리법인 및 단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또한 2018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1~3년차 참여기업이 2019년 사업 2~4년차로 참여할 경우 반드시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격여부 확인 후 제외사유가 없으면 우선 선정된다.
청년 취업자는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로 현재 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하면, 1년차에 청년 300만원, 기업 200만원을, 2년차에는 청년 300만원, 기업 150만원을, 3년차에는 청년 400만원, 기업 150만원을, 4년차에는 청년에게 500만원이 지급돼 청년 취업자 1명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청년을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국내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비영

단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자, 마지막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는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장성군 관계자는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혜택이 지난해 청년 취업자와 기업에게 3년간 최대 1천2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4년간 최대 2천만원으로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면서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참여 신청은 내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수하며, 장성군 일자리경제과(061-390-7467)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은 내달 22일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장성=정윤섭 기자 jjs@

기사제보 2580@jndomin.kr



영광군이 최근 중년 여성들의 갱년기 극복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 중년여성 갱년기 극복방법 모색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건강교실 등 운영

영광군은 최근 중년 여성들의 갱년기 극복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영광군 보건소는 갱년기 증상으로 찾아오는 많은 여성 민원인에게 유관기관에서 할 수 없는 우울증 진단 스크리닝 척도 측정하고 정도에 따라 건강 상담을 통해 갱년기를 적극적으로 담당하

게 극복할 방법을 찾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체적 변화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 이 시기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3월 11일부터 '한방 도전 갱년기여가라' 건강교실을 주2회(월, 수요일) 총 15회 진행하며 한방으로 다스리는 갱년기교실, 근력강화운동, 요가, 웃음

치료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한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심각한 우울증 및 만성질환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갱년기 증상에 대한 올바른 예방법과 건강관리 교육 등으로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61-350-5561) 또는 각 읍·면 보건지소에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담양, 청년담양 전문농업인 양성 '제12기 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

담양군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을 이끌어갈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제12기담양군농업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군은 생산비 절감, 새로운 작목의 체계적인 재배기술, 유통 등 단계별 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의 열망에 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12기 담양군농업인대학'을 운영한다.
교육은 대학과정인 2개과정, 스마트팜(과채류)과 포도(사인머스켓)과정을 개설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입학 희망자는 2월 28일까지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업인대학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1기에 걸쳐 77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졸업생들은 품목별 연구모임, 추수 교육, 교육 피드백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교육경영담당(061-380-3440)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강종연 기자 jibest1@